

# 무릉도원올레권역 마을만들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Plan of Rural Community Design in Mooreungdownolle Region

강 기 호\* · 이 진 희\*\*  
(Kang, Ki-Ho · Lee, Jin-Hee)

### 목 차

- I. 서론
- II. 이론적 고찰
- III. 무릉도원올레권역의 현황 및 문제점
- IV. 무릉도원올레권역 마을만들기의 활성화 방안
- V. 결론

## I. 서론

국토의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문제는 같은 지역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성장이 집중되는 곳과 반대인 곳이 발생함으로써 지역 내 불균형 발전이 유발되는 현상이다. 문제지역의 유형으로는 낙후지역, 침체지역, 과밀지역이 있다. 낙후지역과 침체지역은 개발의 부진으로 인한 낮은 소득수준, 높은 실업률, 과도한 인구유출 등이 문제인데 과밀지역은 과도하게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고, 지나친 성장이 문제이다. 낙후지역은 농업, 임업, 어업, 광산업 등 1차 산업에 주로 의존하고, 산업은 생산성이 낮으며, 자원의 고갈, 기술의 낙후 등의 요인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업문제, 저소득, 저 성장률과 그에 따른 높은 인구유출이 일반적인 현상이다(이진희, 2009).

정부에서는 낙후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1950년대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관광개발학과 박사과정, 제1저자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관광개발학과 교수, 교신저자

후반 전쟁 후 사회의 낙후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농촌지역 근대화 작업의 일환으로 ‘지역 사회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나라의 농촌정책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고, 1970년대 새마을운동과 1980년대 정주권개발을 거치면서 점차 진화하게 되었다(송미령 외, 2008). 1990년대에는 UR협상 등을 계기로 농촌개발정책의 사업이 풍부해졌고 관련 부처들도 늘어나기 시작하였는데, 이 시기에 ‘농어촌정비법’, ‘농어촌도로정비법’, ‘오지종합개발촉진법’, ‘도서개발촉진법’ 등이 제정되게 되었다. 2000년 전후로 하여 기존 농촌개발정책에 대한 반성과 지역개발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새로운 농촌지역개발정책이 등장하게 되며, 2004년에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산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중앙정부의 부처별 농산어촌 지역개발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sup>1)</sup>을 제정하게 되었다(신중진·송승현, 2008). 이러한 변화에 따라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이 출현하게 되는데 이들은 대부분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둔 사업들로 농촌의 고유성과 내재적 가치를 극대화 하는데에 중점을 두었다.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해 오던 ‘오지종합개발사업’과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여 농촌에 관련된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고, 농촌을 도시와 견줄 수 있는 문화경제의 공간으로 인식하여 각 지자체의 개발수요를 반영한 개발전략들이 추구되었다. 농촌지역 개발에 있어서 지자체의 역량이 반영되는 여러 가지 개발 프로그램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런 흐름에 따라 여러 개발 프로그램들은 ‘개발’이라는 표현보다는 ‘만들기’라는 표현으로 불리어지게 되었는데, ‘마을만들기’ 등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임경수, 2010).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농업·농촌발전 기본계획에서 선정한 9대 혁신과제의 하나인 ‘살고 싶고, 가고 싶은 농촌 조성’을 위하여 2004년에 태동된 농촌정책사업으로 지역주민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개발방식을 지향하였고, 동일 생활권·영농권·수리권 등 같은 특성을 가지며 주민 간 유대감을 갖는 인근의 마을을 소규모 권역으로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2010년에 도입된 포괄보조금제도(block grants)는 시·군이 자율적으로 지역개발을 추진하면서도 자율과 책임의 원칙을 적용하여 사업의 효율성·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도의 도입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 산촌생태마을, 소도읍육성사업 등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통합되었고, 동질성과 성장 잠재력이 있는 1개 법정리 이상의 마을들을 소권역으로 묶어 기초생활환경정비, 경관개선, 소득기반확충, 지

1) 법률 제12844호,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2004년 3월 5일 제정 이후 24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역역량강화 등이 포함되는 주민 참여형 상향식 종합개발사업인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는데, 한미 FTA체결, 농수산물정책 변동 등 여건변화로 당초 2013년까지 1,000개 권역 개발 목표에서 2017년까지 목표 년도를 연장하게 되었다(농림수산물부 한국농어촌공사, 2010).

이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라는 큰 프레임을 유지하고 내부적으로 수정, 보완해나가며 지역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5년 현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군역량강화,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의 총 4가지 사업유형으로 진행되고 있다. 2004년에 태동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현재 사업 유형에서 권역단위로 종합개발 하는 방식의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농촌의 지역개발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왔는데, 과거의 하드웨어 위주의 하향식 개발 보다는 마을공동체 해체위기를 극복하고, 농촌의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지역개발을 추진하는 마을만들기가 화두가 되고 있다.

제주지역의 농어촌 경제는 1980년대 후반부터 감귤과 관광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전국 지역경제의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여 왔으나 1990년대 후반 이후 IMF 금융위기, 경기침체, 감귤을 비롯한 농산물의 과잉생산, WTO체제에 따른 시장개방 등의 영향으로 급격한 성장률의 둔화를 보이고 있다.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 2004년 칠레와의 FTA 체결, 그리고 2007년 미국과의 FTA 타결에 이어 2013년 한중 FTA 1단계 6차 협상이 종료되었다. 농수산물 시장 개방화가 본격화되어 농어촌을 둘러싼 환경은 시장경제라는 큰 틀 속에서 빠르게 변하면서 감귤산업과 수산업 등의 성장률 하락은 제주도 농어촌경제를 위축시켜 상대적으로 소득감소로 연결되어 인구의 도시유출이라는 지역문제를 낳고 있다(이진희, 2015).

농어촌이 풀어야할 핵심과제는 농어촌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농어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어촌의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민참여형 농어촌지역 마을만들기의 대표적 사업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도원올레권역의 마을만들기 사례를 탐구하여 권역의 자원과 진행 중인 마을만들기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무릉도원올레권역 마을만들기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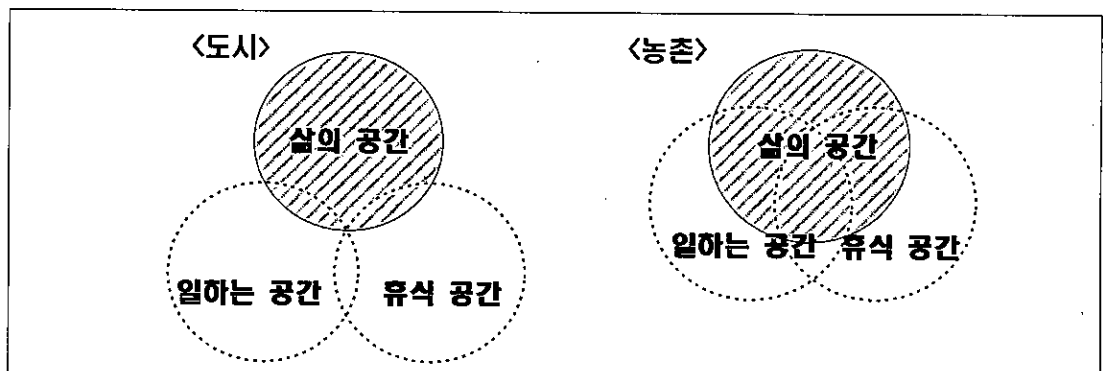
### 2.1 마을만들기의 개념

‘마을만들기’라는 용어는 일본의 마치즈쿠리(まちづくり)를 직역한 것인데, ‘마치즈쿠리

(まちづくり)'는 마치(まち)라는 명사와 즈쿠리(づくり)라는 명사형 동사의 복합어로서 우리말의 '마을만들기'로 번역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마치(まち)는 물리적 공간만이 아니라 전체 공간으로서 인간의 공동체적 생활공간을 지칭하고, 즈쿠리(づくり)는 토목, 건축, 조경 등 물질적인 것 뿐만 아니라 마치를 움직이는 조직이나 재정, 자치조직, 주민 의식 등 소프트한 측면을 포함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결국 마치즈쿠리(まちづくり)는 '해당 지역에 살고있는 주민들이 그 지역의 거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자원의 공동관리를 지향하는 운동' 또는 '거주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요구들을 받아들여 개발계획에 주민참여를 도모하는 것' 등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지경배, 2002).

마치즈쿠리의 주제는 주위 환경·경관개선과 같은 하드웨어적 측면뿐만 아니라 '역사가 살아 숨쉬는 마을만들기', '마을의 특산물을 이용한 개발 및 마케팅'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측면, 그리고 '지역 인재 만들기' 등의 휴먼웨어적 측면을 모두 포괄한다(이진희, 2013).

한편, 마을만들기에 대하여 김찬호(1998)는 '쇠퇴하는 지역을 지역단위에서 자율적으로 갱신해갈 수 있도록 협동체계를 구축하고 사회 문화적 기반을 만드는 작업이며, 공간과 결부된 삶을 운영하는 원리를 주민의 입장에서 구상하고 사회적으로 조정하는 활동' 이라고 규정하였고, 박혜련(2002)은 '삶의 많은 영역들을 분해하고 대규모로 집적시켜 재배치하는 자본의 지역공간 재편 논리에 대항하여 삶의 총체성을 담는 그릇으로서 공간을 다시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이라고 하였으며, 이명규(2007)는 '종교, 문화, 국적, 이해 등을 공유하는 공동체, 공동의 특징을 가진 사회,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활을 유지하며 편리하고 보다 인간답게 생활하기 위해 공동의 장인 마을을 만들어가는 방식'이라고 규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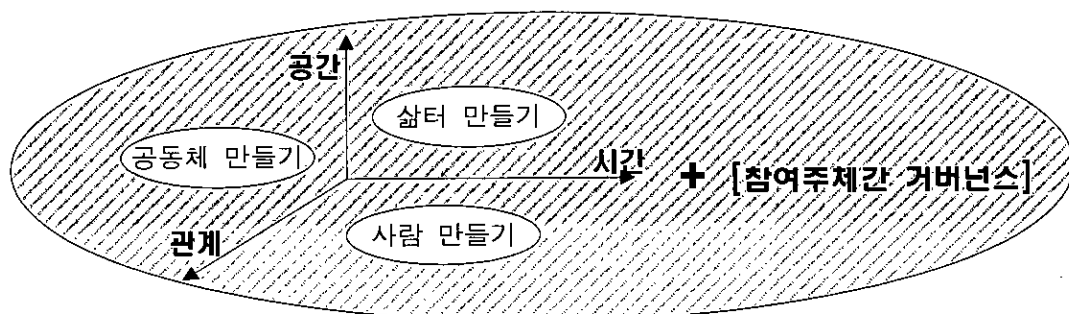
자료 : 행정자치부연세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2007),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성공매뉴얼 개발 연구, p.8을 참고하여 연구자 재구성.

<그림 1> 마을만들기의 개념적 영역

마을만들기는 위 <그림 1>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삶의 공간을 중심으로 일하는 공간, 휴식 공간이 부분적으로 관련성을 맺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시보다는 농촌에서의 삶의 공간이 일하는 공간, 휴식 공간과 더욱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행정자치부연세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 2007).

## 2.2 마을만들기의 구조

마을만들기는 아래 <그림 2>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삶터 만들기, 사람 만들기, 그리고 공동체 만들기를 종합적으로 해 나가는 연속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을만들기는 물리적 시설을 포함하여 시간, 공간, 관계의 차원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역사와 문화전통을 이어가는 과정을 중시하는 시간의 차원, 그리고 자연과 주위 환경의 공간 차원, 공동체 회복을 중시하는 관계의 차원 모두를 아우른다고 할 수 있다.



자료 : 차성란(2010), 가족친화마을만들기를 위한 모델 및 핵심 요소,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8권 2호, p.67을 참고하여 연구자 재구성.

<그림 2> 마을만들기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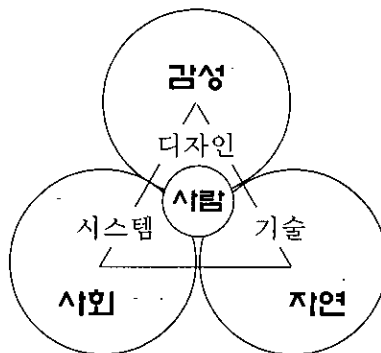
삶터 만들기는 쾌적한 환경 가꾸기, 교육·복지 등의 생활여건 만들기, 일자리 창출 등의 여건 조성을 포함한다. 사람 만들기는 향후 마을만들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리더를 양성해 내는 과정이고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평생교육 과정이다. 공동체 만들기는 주위 공간적 요소를 배경으로 주민 간, 주민과 기관 간의 관계, 그리고 주민과 주변 환경 및 시설 등과의 관계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을 이끌어내는 과정이다(차성란, 2010).

공간 차원의 축에서 마을의 자연경관적 가치 발견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시간 차원의 축에서는 마을의 문화역사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자연경관적 가치의 발견은

공간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장소마케팅(place marketing)’적 접근이라고도 할 수 있다(김미영, 2009).

이러한 마을만들기의 구조 프레임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행정, 전문가등이 보조적으로 참여·지원해주는 거버넌스가 필요한데 여기서의 거버넌스는 주민, 행정, 그리고 전문가그룹 간의 무권위의 수평적 협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을만들기의 연결 구조는 아래 <그림 3>과 같이 세 가지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 첫째는 자연과 자연에 손을 댈 수 있는 기술의 측면이다. 기존 학문으로 말하자면, 토목, 건축, 조경, 지질, 전기, 기계 등을 중심으로 한 물적 요소와 관련된 하드웨어적 측면이다. 둘째는 사회의식이나 생활양식, 관리운영 등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하드웨어를 결정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측면이다. 셋째는 인간의 감성에 관계된 아름다움, 즐거움, 평온함 등 쾌적한 거주성이라 총칭되는 것을 만들고 보전하는 디자인이나 예술 등의 측면이다. 마을만들기에서는 위와 같이 서로 다른 세 가지 분야를 사람 중심으로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가 열쇠가 된다(다무라아키라, 1987).



자료 : 다무라아키라(田村明)(1987), 강혜정 옮김(2005), 『마을만들기의 발상』, pp.65-66을 참고하여 연구자 재구성.

<그림 3> 마을만들기의 연결 구조

### 2.3 마을만들기의 추진주체

마을만들기의 추진주체는 주로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행정(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마을만들기의 추진주체별 분류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마을만들기 추진주체별 세부 분류

구분	마을만들기 추진주체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행정	기업
세부 분류	일반주민 주민조직	주민참여관련단체 주택복지관련단체 생태환경관련단체 공동체문화관련단체 교육환경관련단체 주택관련단체	교수 전문기술자 연구원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읍면동사무소	민간기업 공기업

자료 : 김남두(2006),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사업의 유형별 특성 분석, 충북대 석사학위 논문, pp.41-44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재구성.

마을만들기는 주민들만의 참여가 아니라 주민을 중심에 둔 다양한 분야의 네트워크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다. 주민들이 주도한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모든 것을 일임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에 기초하여 전문가, 행정 등의 추진주체들 모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찾고 실천해가는 것을 의미한다. 마을만들기의 추진주체는 주민뿐만 아니라 전문가, 행정, 시민단체 등이 자리매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세용 외, 2013).

이러한 마을만들기 추진주체들 간의 거버넌스<sup>2)</sup>가 마을만들기의 성공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지만 여관현·계기석(2013)은 “마을만들기의 실질적인 주체인 주민들이 아닌 공공기관이나 전문가에 의해 마을만들기가 주도됨으로써 마을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가 진행되기 어렵게 되어 있으며 단기적 성과를 위한 하향식 마을만들기 지원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라고 지적한바 있다.

주민참여를 표방하는 많은 사업들이 실제로는 행정 또는 전문가가 주체가 되고 주민들은 수동적으로 참여하고 수혜를 입는 수동적 참여로 일관되어 왔다(지경배, 2005). 주민 주도 의 마을만들기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역할, 그리고 행정의 재정적 지원 중요성은 결코 부정할 수는 없을지라도 마을을 진정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함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김동근, 2011).

## 2.4 마을만들기의 추진내용 및 체계

농촌의 마을만들기는 크게 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소득증대, 지역역량강화의 4가

2) 본 연구에서의 거버넌스는 마을만들기에 있어서 주민, 행정, 전문가 간의 수평적 협치 개념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지 사업으로 추진되는데, 주로 지역역량강화를 우선 시행한 후 경관개선과 기초생활기반 확충, 소득증대의 사업으로 확장해가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다. 사업별 주요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능별 사업종류 및 내용

사업 종류	사업별 주요내용
① 기 초 생 활 기 반 확 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 지역 주민이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 등</li> <li>- 농촌정주 여건개선을 위한 마을내 도로, 상하수도 배수로, 교량, 주차장 등</li> <li>-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다목적화판·정보화시설 등</li> <li>- 농산어촌의 농업소득원을 확충하기 위한 농어업기반(소규모용수개발, 경직토확포장, 지표수보강개발 등) 시설 등</li> <li>- 지역사회 유지 및 도시민 유치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 등</li> <li>※ 농어촌지역 및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주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운동휴양시설 및 서비스전달체계 재해대비시설 등이 해당</li> <li>○ 지원제외 : 마을조생(산규, 재개발 등)에 소요되는 토지 구입비, 주택건축비</li> </ul>
② 경 관 개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 및 농촌다운 자연경관 유지를 위한 시설</li> <li>- 농어촌지역 자연경관의 농촌다운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경관계획 수립 등</li> <li>- 농어촌지역의 불량경관의 정비를 위한 지붕담장정비, 경관수목 식재, 마을보호수, 민속자료 등의 정비 사업</li> <li>- 지역사회의 중심거점인 읍면소재지의 체계적인 정비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 시설, 가로경관 및 간판정비 사업 등</li> <li>○ 지원조건(주요) : 지붕, 담장, 간판정비는 10가구 이상의 집단적인 정비사업에 한하며 시설비의 20%는 수혜자 부담</li> </ul>
③ 소 득 증 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 지역자원 및 특산물을 활용한 지역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시설 등</li> <li>- 농도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체험시설, 폐교일대활용, 생태학습장, 문화체험관 등</li> <li>- 지역의 농·특산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공동 농특산물판매장, 공동 소규모기공시설, 공동 저온 저장고시설, 공동 농산물선별장 등</li> <li>○ 지원조건 : 소득기반시설은 행정리(동)를 단위로 하는 공동사업(10가구 이상 법안)에 한하여 지원, 사업비 총액의 20%는 수익자(주민) 부담, 소득을 위한 소득기반시설에 소요되는 토지구입비, 건물 임차비 등은 수익자(주민) 부담</li> </ul>
④ 지 역 역 량 강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li> <li>- 기능별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비 등의 부대경비, 지역마케팅, 관계자교육, 홍보, 컨설팅, 마케팅, 자문 소요경비 등의 지원</li> <li>- 기초생활권의 기능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리더 및 주민교육, 브랜드개발, 귀농 및 귀촌 프로그램 등의 지원</li> <li>○ 지원조건 : 시군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다음연도 예산신청액의 10%범위 내에서 반영(기본계획 수립비, 설계비, 감리비 등 부대경비 포함 시 10%초과 가능)</li> <li>○ 지원제외 : 사업과 관련 없는 경상적 경비(업무추진비, 여비, 수송비 등)와 종합사업(하드웨어)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외의 S/W 단독사업은 지원제외</li> </ul>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참고자료, p.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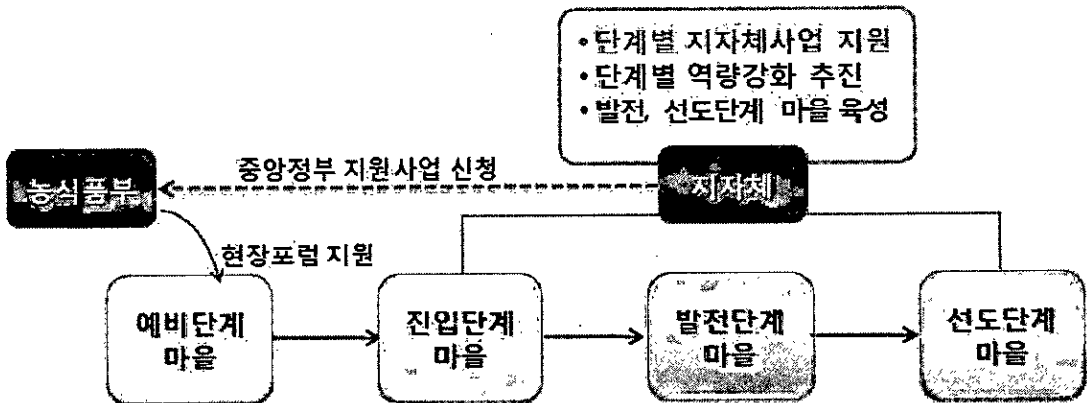


현재 진행되는 농촌마을개발 사업은 주민, 행정, 전문가그룹 등의 추진주체들이 참여하여 역할 분담을 하는 민관협력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농촌의 활력 창출을 위한 범 국민운동인 '함께하는 우리 농촌 운동'의 일환으로 2017년까지 색깔 있는 마을 5,000개를 육성하고자 주민들이 주도하면서도 행정, 전문가그룹에서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발전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진행하고 있다(표 3, 그림 4 참조).

<표 3> 색깔있는 마을만들기 발전단계별 지원체계

구분	사업유형	지원내용
예비단계	현장포럼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발전계획수립
진입단계	소액사업 추진	경관문화복지 등 기초생활기반확충
발전단계	종합개발 추진	인프라, 소득사업 등 종합적 개발
선도단계	s/w 중심 개발	완료지구 활성화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4), 색깔있는 마을만들기 교육자료 참고.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4), 색깔있는 마을만들기 교육자료 참고.

<그림 4> 색깔있는 마을만들기 추진 체계도

진안군은 주민과 행정 간 신뢰회복에 중점을 두고 마을의 주민들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를 위해 시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마을만들기를 진행하고 있다. 그린빌리지사업→참살기 좋은마을가꾸기→으뜸마을가꾸기→소규모국비사업→중대규모국비사업의 5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장의 성과보다는 진행 과정을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구자인, 2012).

제주도의 경우에도 2013년도부터 마을만들기 5단계 행정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음 <표 4>와 같이 예비마을→시범마을→CB(커뮤니티비즈니스)추진마을→중앙사업응모 마을→사후관리지원마을의 5단계 지원체계로 사업의 효율성을 증시하고 있다.

<표 4> 제주특별자치도 단계별 마을만들기 추진내용

사업구분		사업내용
1단계	예비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읍면동추진 년 20개 마을 마을당 10백만원 지원</li> <li>○ 자원조사, 학습토론, 마을발전계획마련 등 기초작업</li> </ul>
2단계	시범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사추진 년 10개 마을 마을당 50백만원 지원</li> <li>○ 소규모 환경개선 소득시범사업 등 공동체사업 경험축적</li> </ul>
3단계	CB추진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청추진 마을당 100백만원 지원</li> <li>○ 축적된 경험을 통해 마을단위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li> </ul>
4단계	중앙사업응모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사별로 준비된 1~2개 마을 선발</li> <li>○ 농어촌체험휴양마을, 권역단위종합정비 등 중앙사업 지원</li> </ul>
5단계	사후관리지원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를 근거로 관리마을 선정</li> <li>○ 전문가 멘토지원 공동홍보, 사후관리프로그램 보급</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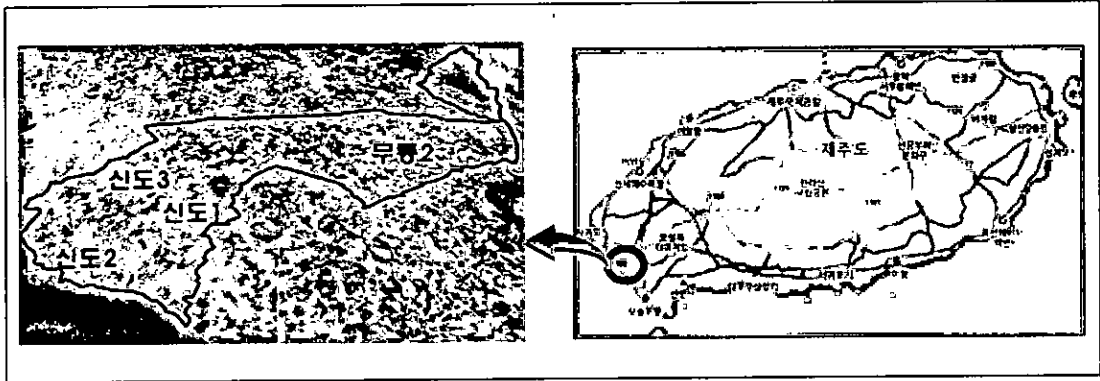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2012), 마을발전사업 매뉴얼, p.14. 참고.

### III. 무릉도원올레권역의 현황 및 문제점

#### 3.1 무릉도원올레권역의 일반현황

##### 3.1.1 권역의 위치 및 행정구역

무릉도원올레권역은 서귀포시의 서쪽 끝에 위치하며, 대정읍의 서북쪽에 위치하는 권역으로 해안가를 따라 순환하는 1132번 지방도(일주도로)가 권역을 관통하고 있고 1135번 지방도(평화로)를 통하여 권역 진입이 가능하며 제주공항에서 자가용으로 1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무릉도원올레권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1리, 신도2리, 신도3리, 무릉2리의 4개 행정리로 이루어진 권역으로 권역 전체의 면적은 1,470ha, 대정읍 전체 면적 7,863ha의 19%를 차지하고 있다. 행정리별로는 신도1리가 464ha, 신도2리가 205ha, 신도3리가 221ha, 무릉2리가 580ha로 무릉2리가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2010).



<그림 5> 무릉도원올레권역 위치도

### 3.1.2 권역의 마을유래

제주도는 본래 동서의 거리가 멀어 지역 방어상 곤란했기 때문에 1416년(태종 16년) 안무사 오식의 건의에 의해 한라산을 중심으로 남부를 양분하여 양현을 세우게 되었다. 동을 정의, 서를 대정이라 칭하고 대정구역을 다시 동 범환, 서 판포, 북 저지, 남 마라도 까지 관할하게 되었다. 당시 분리 지역에는 인가가 없었으나 1519년(중종 14년) 사화도지사 이세번이 대정현 둔포에 유배되어 귀양살이를 하다가 현지에서 적사하여 고산리 신물 경에 안장되었다고 전한다. 그 후 서기 1588년을 전후하여 둔포리에 집주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업을 주업으로 하여 모여살기 시작했으나 왜구들의 노략질이 심하여 주민들은 포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현재 녹남봉을 의지하여 20여 가구의 촌락을 이루게 되었다. 이것이 신도리 설촌의 시작이다. 1730년을 전후하여 마을이 점차 커졌고 1768년에 둔포리에서 도원리로 개명되던 당시 현 무릉2리의 인향동이 중장리로 분향되었다. 1794년 ~ 1800년 중장리를 중심으로 마을이 크게 형성되어 행정단위 부락인 무릉리가 분리되었다. 1750년 경 논각(현 신도2리), 1795년 경 비자동(현 신도3리)이 분리 설동되었다. 1914년 세부측량 당시 구역관리상 난점이 있다 하여 도원리에서 신도리로 개명하면서 도원 경내에 속했던 인향동, 땡두못, 전지동 등이 무릉리에 편입되었고, 한장동 일부가 고산리에 속하게 되어 법정 신도리 구역이 확정되었고 그 후 1918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신도를 1구와 2구(현 신도3리 포함)로 분리하였다. 광복후 1946년 현 신도3리 주민들의 생활 여건에 맞게 신도2구에서 신도3구로 분구되었고 1953년 직제개편으로 구를 리로 하여 현재의 신도1리, 신도2리, 신도3리가 되었다.

1768년 현 무릉2리 인향동이 도원리로부터 중장리로 분향될 시기에 무릉2리 좌기동과

무릉2리 평지동은 모동장 우장으로 지정된 초기였으므로 목감 또는 목자들만이 기거하였으며 취락이 형성된 시기는 1830년경으로 추정된다. 관할상으로 보면 1826년 중장리를 인향리로 개칭할 당시까지 도원리에 입적되었다가 1910년 국유목장을 민유로 이관한 후인 1914년 일본인에 의한 측량 결과로 3개동 전 지역이 무릉경으로 귀속되었으며 사기수를 좌기동으로, 고바치를 평지동으로, 인향리를 인향동으로 각각 개칭함과 동시에 행정상 무릉 상동에서 편제되어 현재 무릉1리에서 제반 사무를 관장하다가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1920년 무릉1, 2리로 분할하게 되었다(신도리 홈페이지 및 무릉도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참고).

당초 둔포리(신도리의 옛 이름)의 부락명이 좋지 않아 도원(桃源)리로 개칭하자, 이웃마을에서도 무릉도원의 머리글자를 따서 무릉리로 개칭했다고 전해진다(헤럴드경제 칼럼 2011.11.09. 박인호의 전원별곡 기사 참고).

### 3.1.3 권역의 지형 및 기후

무릉도원올레권역은 권역 중심에 해발 100m 높이의 녹남봉이 위치하고 있고, 주위 전체적 지형이 낮은 구릉지로 둘러싸여 있으며 대부분 5~100m의 표고, 7도 이하의 경사로 이루어진 평탄한 곳이다(한국농어촌공사, 2010).

연평균기온은 제주도내 평균 16.33℃, 권역이 15.5℃로 도내 타 지역보다 다소 낮은 편이다. 연평균 강수량은 제주도내 평균 1001.7mm, 권역이 697.1mm로 도내 타 지역과 비교하여 편차가 큰 편이다. 연평균 맑은 날은 제주도내 67일, 권역이 53일로 도내 타 지역보다 다소 흐린 날이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연평균 풍속은 제주도내 3.9m/sec, 권역이 6.8m/sec로 도내 타 지역과 비교하여 편차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제주특별자치도 통계연보, 2014).

### 3.1.4 권역의 인구 및 세대 현황

2008년 12월 기준 인구통계와 2013년 12월 기준 인구통계를 비교해보면 다음 <표 5>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전체 권역의 인구수는 5년 사이에 41명이 줄어들었고 세대수는 35세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입 세대수는 늘었으나 평균 세대원 수가 줄어들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는 근래 농촌지역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표 5> 무릉도원올레권역 인구 및 가구 변화 추이

구분	인구			세대	
	계	남	여	세대수	세대원수
권역	1,449	742	707	594	2.4
신도1리	424	200	224	173	2.4
신도2리	232	121	111	99	2.3
신도3리	245	136	109	101	2.4
무릉2리	548	285	263	221	2.5

자료 : 2009년 서귀포시 통계연보(2008.12.31.기준)

구분	인구			세대	
	계	남	여	세대수	세대원수
권역	1,408	704	704	629	2.2
신도1리	389	184	205	174	2.2
신도2리	239	122	117	113	2.1
신도3리	216	117	99	101	2.1
무릉2리	564	281	283	241	2.3

자료 : 2014년 서귀포시 통계연보(2013.12.31.기준)

### 3.1.5 권역의 토지이용

무릉도원올레권역의 토지 중 전, 답, 과수원 등 농업적 이용 면적이 1,000ha로, 전체 면적의 약 68%를 차지한다. 특히 전의 면적이 940ha로 농업적 이용 면적 중 94%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무릉도원올레권역 토지이용 현황

구분	전	답	과수원	대지	임야	기타	계
면적(ha)	940	5	55	100	300	70	1,470
구성비(%)	64	-	4	7	20	5	100

자료 : 2009년 서귀포시 통계연보(2008.12.31.기준), 2009년 대정읍사무소 자료 참고.

### 3.2 무릉도원올레권역의 자연자원



<그림 6> 무릉도원올레권역 자연자원

#### 3.2.1 녹남봉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1리 1304번지 일대에 위치한 표고 100m, 면적 124,498㎡의 원형 측화산이다. 예전에 이 오름에 녹나무가 많아 녹남오름이라 했으며, 이를 한자로 표음화하여 농남봉(農南峰)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지금은 소나무를 주종으로 예덕나무 같은 잡목이 있고 상록수로는 가마귀쪽나무, 후박나무 등이 자라고 있으며 녹나무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오름 정상에 원형분화구를 갖고 있고 올레 12코스 중 한 지점이다(신도1리 홈페이지 참고).

#### 3.2.2 무릉 꽃자왈

무릉리 꽃자왈 숲길은 2008년도 전국 아름다운 숲길 공존산을 수상하고, 길이가 약 3km로 제주의 여러 꽃자왈 중 가장 긴 숲길이다. 예전에는 가시덤불과 풀들로 우거져 있었지만 제주 올레 11코스 마지막 구간으로 편입된 이후 이곳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하여 마을에서 정기적으로 정비활동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멸종위기 식물인 백서향을 흔하게 볼 수 있고, 사스레피 나무꽃, 섬새우난, 호랑가시나무, 방일엽, 꽃구름버섯, 가는잎할미꽃, 녹나무, 야생화, 청띠신선나비, 큰멋쟁이나비, 줄장지뱀, 제주관박쥐 등의 동식물들을 접할 수 있으며 화산암 길, 복분자나무 군락, 종가시나무 군락 등을 볼 수 있는 생태 숲이다(YTN science 2009.04.06. 기사).

#### 3.2.3 왕개동산

무릉2리 마을회관 앞 무릉생태학교 진입로 우측에 있는 동산으로, 무릉리 574-1번지에

위치해 있고 1,934㎡의 면적을 가지고 있다. 왕씨 성을 가진 목자가 이 동산에 상주하면서 모동장 목장을 관리하였다고 하여 호칭된 곳이다. 이 동산은 개인소유였으나 마을청년 23명이 향상회를 조직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곳을 매입하여 공원화 사업을 계획했으나 군입대 등으로 뜻을 이루지 못해 후대에 역사적인 장소로 남길 기원하며 좌기마을에 기증했다.

왕개동산은 1948년 4.3사건 당시 동네청년 5명이 이곳에서 총탄에 희생된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산은 동네 어린이들에게 놀이터 및 자연학습장으로 많은 사랑을 받으며 무릉2리 주민들의 마음 속에 추억 어린 장소로 자리매김 했다. 이러한 왕개동산이 오랫동안 자연상태로 보전되어 오다가 현재는 270여 종의 다양한 동식물이 자라는 생태 숲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무릉도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참고).

### 3.2.4 신도리 해안

신도2리 바닷가는 제주도 서부지역 바닷가에서 유일하게 양식장이 없는 곳으로 청정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제주도내 해안 중 흔치않게 신도리 해안에는 도구리<sup>3)</sup>가 잘 발달되어 있으며 해안도로변의 바다 경관이 수려하다.

## 3.3 무릉도원올레권역의 역사문화자원

### 3.3.1 신도1리 도요지

이 유적은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58-4호로 지정되어 있고, 대정읍 신도리 1040번지에 위치해 있다. ‘일곱드르 노랑굴’이라고도 하는데, 동고서저로 축조된 노랑굴도요지이다. 선현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던 허벅, 통개, 병, 장태 등의 도기를 만들었던 곳이다. 타 지역에서는 그릇의 표면에 유약을 칠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 곳에서는 유약을 칠하지 않고 자연 발색시켰다고 한다. 또한 타 지역은 모두 토요(土窯)인 데 반해 제주도의 도요는 세계 유일의 석요(石窯)이다. 현재 남아 있는 굴의 규격은 길이 8.85m, 너비 2.57m, 높이 1.56m이며, 근대 초·중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곳은 제주도 특유의 도기 문화를 꽃 피우던 곳일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문화재청 홈페이지 참고).

3) 지역에 따라 도고리라고도 부르는 도구리는 넓고 낮은 불완전 원형으로 만든 생활 용구로서, 제주 지역에서 흔하게 쓰이던 나무 그릇이다(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제주 해안에서는 도구리와 비슷한 형상의 해안 바위 웅덩이를 도구리라고 부르고 있다.

### 3.3.2 산경도예

옛 신도초등학교(폐교)에 도자기, 작업공간이자 체험·판매공간인 산경도예가 위치해 있다. 계룡산 도예촌에서 활동하다가 제주도로 내려와 2001년에 이곳에 자리를 잡은 김경우·문선예씨 부부는 지금도 도자기, 테라코타, 토우, 전통가마체험 및 물레돌리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3.3.3 신도2리 하멜표류 희생자 헌다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선원인 하멜이 일행과 함께 네덜란드를 출발해 일본 나가사키로 향해하던 중 폭풍을 만나 1653년(효종 4년) 8월 16일 제주도에 표착해 13년간 억류됐다가 1666년(현종 7년) 9월 일본으로 탈출했다. 네덜란드로 돌아간 하멜은 제주 표착 과정과 조선에서의 억류 과정, 당시 조선의 문물과 생활, 풍속 등을 기록한 하멜표류기를 썼다. 이 표류기는 조선을 유럽에 처음 소개한 책자로도 유명하다.

1980년 한국국제문화협회와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이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방산 남쪽 용머리 해안을 하멜 표착지로 정하고 기념비를 세웠고, 현재는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다.

1697년 조선 숙종 때 제주목사를 지낸 이익태(1633~1704)가 쓴 ‘지영록’에는 하멜이 제주에 표착한 1653년 7월 24일(음력) 당시의 풍경이 다음과 같이 묘사돼 있다. “西國蠻人 헨드리크얌센 등 六十四名同乘一般 致敗于大靜縣地方 遮歸鎮下大也水沿邊 (서양인 헨드리크 얌센 등 64명이 함께 탄 배가 대정현 차귀진 아래 대야수 해변에서 부서졌다)”

1702년(숙종 18년)에 당시 제주목사였던 이형상이 제주도의 각 고을을 순회한 장면을 기록한 채색 화첩인 ‘탐라순력도’ 등에도 ‘대야수포’(大也水浦)는 수월봉 부근이라고 표기돼 있다.

특히 신도2리 향민회는 “하멜표류기의 표착지 삽화에 신도1리의 녹남봉과 한라산이 그려져 있는 것이고, 이 삽화와 일치하는 풍경은 신도2리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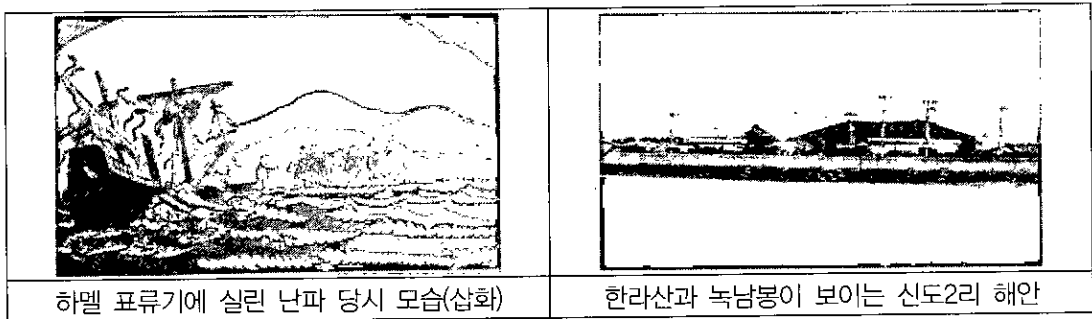
지영록을 번역한 김익수 전 제주도 문화재 전문위원은 “당시에도 자료 부족 등으로 철저한 고증 없이 주변 경치가 수려하고 인근에 관광지가 많은 것 등을 고려해 산방산 아래에 하멜기념비를 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 지영록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만큼 하멜 표착지를 바로잡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2003년 국립제주박물관이 발간한 ‘항해와 표류의 역사’에서도 ‘遮歸鎮下大也水沿邊’을 거론하며 하멜 표착 지점을 지금의 신도2리 해안 일대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신도2리 향민회는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멜의



표착지 확인 및 표지석 설치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사실 확인을 위하여 제주도 관계부서에서도 학계 등의 자문을 계속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신문, 2012.03.24. 황경근기자).

지난 2012년부터 하멜일행의 최초 표착지가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 인근 해안이 아니라 신도2리 해안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당시 난파로 목숨을 잃은 선원들의 넋을 달래기 위해 매년 신도 해안에서 추모헌다제가 열리고 있다(제주의 소리, 2014.08.12. 이동건기자).



자료 : 제주의 소리 2014.08.12. 이동건기자 기사 참고.

<그림 7> 하멜 표착장소 유사 그림과 사진






### 3.3.4 신도3리 충견 무덤

신도3리에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설화가 있다. 바로 주인에 대한 충심이 극진했던 충견 이야기이다. 다른 집에 팔려가서도 전 주인을 잊지 않고 사냥 후 큰 짐승을 잡을 때마다 전 주인 집에 물어가곤 했다. 어느 날 사냥한 고기를 물고 전 주인집에 가 보니 전 주인이 죽어서 묻혀 있었는데, 이 개는 우는 소리를 내며 마당을 서너 번 돌더니 전 주인 무덤 앞에 땅을 판 후 거기에 드러누워 죽었다고 한다. 그 개 무덤이 신도3리의 충견 무덤이다(문화원형백과 신화의 섬/제주, 2002). 일주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지금 현재는 무덤이 없어졌다.

### 3.3.5 무릉2리 자연생태문화체험골

무릉리 581-1번지에 위치한 자연생태문화체험골은 무릉2리 마을회관 맞은편으로 약 200m의 거리에 위치해 있다. 옛 무릉동분교였던 폐교를 이용하여 생태문화와 농경문화 체험, 그리고 움집에서 선사시대의 의식주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데, 꽃자왈 탐방, 곤충식물 탐구, 초가 집줄농기, 감자 구워먹기, 마늘심기 및 수확 등 약 70여 가지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시에는 경험이 많은 마을 어른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으며 탐방객이 많을 때는 연간 1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다고 한다(제주일보 2014.09.30. 김문기기자).

		
<p>도요지 (출처: <a href="http://www.cha.go.kr">http://www.cha.go.kr</a> 문화재청홈페이지)</p>	<p>산경도에</p>	
		
<p>히멜표류 희생자 추모 현다제 (출처: 제주일보 2012.08.23. 한애리기자)</p>	<p>자연생태문화체험골 (출처: 헤드리인제주 2014.09.10. 흥창빈기자)</p>	<p>충견무덤 (출처: <a href="http://blog.daum.net/annjeju/22">http://blog.daum.net/annjeju/22</a>)</p>

<그림 8> 무릉도원올레권역 역사문화자원

### 3.4 무릉도원올레권역의 경제자원

무릉도원올레권역의 산업구조는 1차 산업의 비중이 크고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며 2·3차 산업의 비중이 작은 전형적인 농촌의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권역의 농산물은 마늘, 감자, 양파 등의 밭작물이 주를 이루고 그 외 콩, 꽃마늘, 쪽파 등의 밭작물과 감귤 등의 과수작물, 그리고 골드키위, 브로콜리 등의 특산물도 생산하고 있다. 특히 권역에서 생산되는 마늘은 재배면적이 647ha로 전체 재배면적의 65%에 달하며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편이다(표 7 참조).

권역의 농가수는 전체 세대수의 84%인 497가구로, 농가 호당 경지면적은 2.01ha이며 대정읍의 1.68ha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표 8 참조).

<표 7> 무릉도원올레권역 주요 농산물 현황

구분	품목	재배면적(ha)	수확량(톤)	유통판매
신도1리	마늘	229	3,435	계통출하
	감자	23	560	
	양파	27	1,600	
	콩	50	1,050	
	무	28	2,556	
신도2리	마늘	98	4,050	
	풋마늘	4	88	
	쪽파	9	190	
	무	22	2,005	
신도3리	마늘	50	750	
	감자	10	240	
	양파	30	1,770	
	콩	30	630	
	무	46	4,201	
무릉2리	마늘	270	4,860	
	감귤	25	840	
	감자	7	200	
	보리	7	300	
	무	6	525	

자료 : 마을 내부자료

<표 8> 무릉도원올레권역 농가 및 농경지 현황

구분	세대수			농경지(ha)			호당 경지면적
	농가	비농가	계	논	밭+과	계	
권역	497	97	594	5	995	1,000	2.01
신도1리	128	45	173	0.6	270.4	271	2.12
신도2리	794	20	99	1.7	99.3	101	1.28
신도3리	98	3	101	-	163	163	1.66
무릉2리	192	29	221	2.7	462.3	465	2.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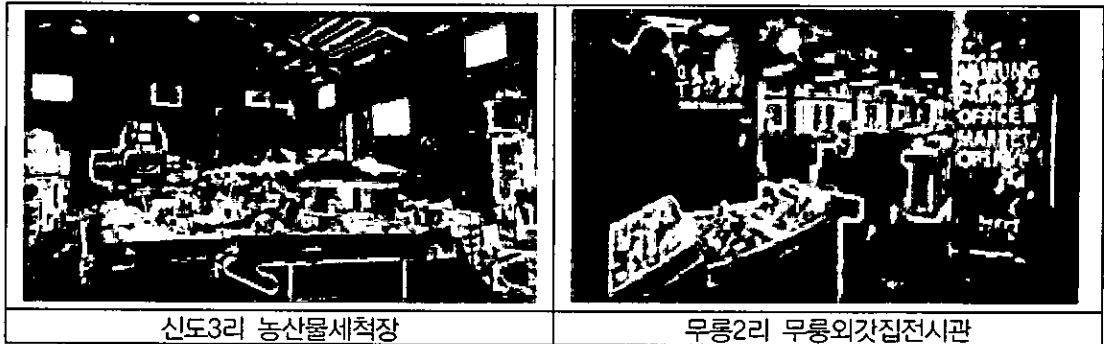
자료 : 2009년 서귀포시 통계연보(2008.12.31.기준), 2009년 대정읍사무소 자료 참고.

4) 신도2리의 경우 농가는 농어를 말하며 어업을 겸하는 19가구가 포함된다. 신도2리 농어가에서 수확하는 주 어획물인 소라의 년 어획량은 약 8,000kg~10,000kg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수협을 통해 계통출하 하고 있다.

권역 내에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설치한 소득기반시설이 두 곳 있는데, 신도리(신도3리) 1901번지에 위치한 농산물세척장과 무릉리(무릉2리) 640-5번지에 위치한 무릉외갓집전시관이 그것이다.

2012년 12월에 완공된 시설인 신도3리의 농산물세척장은 주로 무 세척에 이용하는데, 권역에서의 무 수확이 주로 12월 초부터 5월 말까지 이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1년 기간 중 50% 정도 가동된다고 볼 수 있다. 농산물세척장의 수익 일부는 마을로 환원되고 있다.

2013년 12월에 완공된 시설인 무릉2리의 무릉외갓집전시관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농수산물을 조합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배송해주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꾸러미사업체로,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점차 자생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무릉외갓집전시관에서도 수익 중 일부를 마을로 환원하고 있다.



신도3리 농산물세척장

무릉2리 무릉외갓집전시관

<그림 9> 무릉도원올레권역 소득기반시설

### 3.5 무릉도원올레권역의 사회자원

#### 3.5.1 권역의 문화복지시설

<표 9> 무릉도원올레권역 마을별 문화복지시설

구분	문화·복지시설
신도1리	신도1리 마을회관, (구)신도초등학교(폐교), 권역 홍보센터 등
신도2리	신도2리 마을회관, 연안생태학습장, 보건진료소 등
신도3리	신도3리 마을회관, 웰촌건강센터 등
무릉2리	무릉2리 마을회관, 제주어교실, 보건진료소 등



<그림 10> 무릉도원올레권역 문화복지시설

### 3.5.2 권역 공동체 현황

권역에는 4개 마을(신도1리, 신도2리, 신도3리, 무릉2리)의 추진위원들 약 32명이 모여서 구성된 권역 추진위원회가 있고, 추진위원회 위원들 중 위원장을 비롯하여 마을을 대표하는 위원들 약 10명으로 구성된 권역 운영위원회가 있다. 권역의 마을만들기 사업 등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수시로 운영위원회가 소집되며 정기적으로 권역 추진위원회의가 개최된다.

또한 마을별로 개발위원회, 청년회, 부녀회, 노인회, 영농회, 농산물별 작목반 등이 조직되어 있어서 대소사 시 리장을 중심으로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권역의 중요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 3.6 무릉도원올레권역 주변 관광자원

권역 내 시설 관광자원은 없으나 제주올레 11코스 종점, 14-1코스 종점, 12코스 시점이 권역 내에 있어 올레꾼들이 많이 방문하는 편이다.

주변의 관광자원으로는 수월봉(5km)<sup>5)</sup>, 차귀도(5km), 평화박물관(9km), 추사 김정희 유배지(10km), 생각하는정원(10km), 대정향교(12km), 방림원(12km), 송악산(13km), 오설록(14km), 제주항공우주박물관(14km), 산방산(16km) 등이 있다.

### 3.7 무릉도원올레권역의 문제점

무릉도원이라는 명칭은 무릉리와 도원리(현 신도리)가 합쳐진다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권역의 범위에서 무릉리(무릉1리, 무릉2리)와 신도리(신도1리, 신도2리, 신도

5) ( ) 괄호 안의 거리는 권역에서 대상지까지의 거리를 나타냄.

3리) 중 무릉1리만 빠져 있다. 무릉도원올레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전 예비계획을 수립할 당시(2007년~2008년) 마을의 내분으로 인하여 무릉1리가 제외되었다고 하나, 장래 동일 생활권에서의 공동체 회복을 내다보는 차원에서 접근하여 무릉1리를 끌어안고 같이 권역의 마을만들기를 추진했으면 더욱 의의가 있었을 것이다.

권역사업의 일환으로 완료된 복숭아길 조성사업의 경우, 기본계획에서부터 시행까지 전 과정에 걸쳐 마을의 기후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권역의 년 평균풍속이 6.8m/sec로, 제주도내 3.9m/sec와 비교하여 상당히 바람이 센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복숭아나무를 심고 1년도 되지 않아 센 바람으로 인하여 많은 부분 고사하였고, 지금은 고사목들에 대하여 보식 조치하여 근근이 살려서 관리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바닷가에서 조금 떨어져 중산간에 위치한 무릉2리에 심은 복숭아나무들이 그나마 잘 자라고 있는 편이다. 기본계획부터 마을별 기후를 고려하여 복숭아길 조성을 구상하였다면 결과가 더 좋았을 것이다.

동일 영농권, 생활권 등 동질성을 갖고 있는 4개 마을이 하나의 권역을 이루어 마을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서 권역이라는 큰 프레임 내 적재적소에 아이템을 배치시키고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마을간 상생을 모색하여야 하지만 현재 추진되는 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경우, 각 마을로 배정되는 사업비에 더욱 관심이 커서 자칫 ‘나눠먹기식 사업이 되지는 않을까, 당초 권역사업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권역사업으로 설치한 소득기반시설은 신도3리에 농산물세척장과 무릉2리에 외갓집전시관이 있다. 원래 권역사업의 취지를 고려하면 소득기반시설에서의 수익 일부를 권역으로 환원하여 권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금으로 적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득기반시설이 설치된 각 마을로만 일부 기금이 적립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권역 전체 사업이 준공되면 마을별로 빨빨이 흩어져 마을간 프로그램 연계 및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권역 내 많은 올레꾼들이 방문하고 있으나 대부분 마을을 지나쳐가는 상황으로 권역 내에는 현재 그들을 끌어들이 체류시킬 수 있는 아이템 및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 3.8 무릉도원올레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개요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1·2·3리, 무릉2리 일원
- 사 업 비 : 총 6,120백만원(주민자부담104백만원 별도)
- 사업기간 : 2011년~2016년(2010년 : 기본계획)

- 사업내용 : 권역홍보센터, 연안생태학습장, 웰촌건강센터, 제주어교실, 복사꽃피는무릉도원올레(복숭아길 조성, 돌담정비 등 경관개선), 주민역량강화 등
- 시 행 자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위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표 10> 무릉도원올레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투자 현황 및 계획

가능별		세부사업내역	년도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6,000	615	1,467	1,453	1,527	597	341
기초생활 기반확충	소 계		949	-	-	-	949	-	-
	특지시설	웰촌건강센터	439	-	-	-	439	-	-
		마을회관 리모델링	330	-	-	-	330	-	-
	운동휴양	작은쉼터 조성	180	-	-	-	180	-	-
지역소득 증대	소 계		2,203	96	1,138	969	-	-	-
	소득기반	농산물채확성	260	-	260	-	-	-	-
		우름외갓집전차관	160	-	-	160	-	-	-
		홍보센터	797	-	781	16	-	-	-
	체험관광	해녀/부일장이 체험장	638	96	97	445	-	-	-
		제주어교실조성	348	-	-	348	-	-	-
지역경관 개선	소 계		1,202	256	54	225	309	358	-
	마을경관	복사꽃피는 무릉도원올레 경관계획 수립	1,092	140	54	225	309	358	-
			110	110	-	-	-	-	-
지역역량 강화	소 계		1,646	263	275	259	269	239	341
	주민역량강화		579	152	140	74	108	105	-
	부대비용	계정비	691	111	135	185	161	64	35
예비비		376	-	-	-	-	70	306	

출처 : 내부자료

#### IV. 무릉도원올레권역 마을만들기의 활성화 방안

신도1·2·3리, 무릉2리의 권역 일원은 자연풍광이 아름다운 곳이지만 제주도 서쪽의 변방으로 여겨져 왔던 곳이다. 이농향도의 분위기로 마을이 점차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근래 healing을 위해 권역내 올레코스과 꽃자왈 숲을 찾는 방문객들, 농촌체험 방문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요즘의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서 권역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시점이다.

2009년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10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현재 5년차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많은 부분 완료되어 준공을 앞두고 있으나 권역의 활성화를 거론하기에는 이른 감이 없지 않다. 보통 '권역사업이 완료되면 권역이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것이 주변의 시각이지만 본 권역의 경우, 이제 권역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들이 구축되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던 '주민들이 주도하는' 실질적 마을만들기를 실천해 나갈 때가 다가왔다고 할 수 있다.

중산간 마을인 무릉2리에서부터 바닷가 마을인 신도2리까지 아우르는 권역내의 자원들은 소중하면서도 아름다운 것들이지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처럼 권역의 자원들을 잘 연계하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4.1 깨끗한 마을만들기

아름답고 깨끗한 풍경의 농촌은 도시민들에게는 하나의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언젠가 살아보고 싶은 장소가 되기도 한다. 특히 요즘과 같이 점점 더 각박해지는 사회분위기 속에서는 농촌이 힐링을 위한 공간, 가족과 함께 여행하며 심신을 달래는 공간으로 부각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함께하는 우리 농촌운동'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깨끗한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마을 경관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나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마을에서는 전통적으로 주민들이 단합하여 마을길을 청소하거나 꽃길을 정비하는 등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로 만들어 나가지만 아직까지도 주민들의 의지가 부족하거나 정책의 홍보가 부족한 마을에서는 길가에 폐비닐 등 쓰레기가 방치되고 농기계가 무질서하게 정차되는 등 마을의 경관 가치가 떨어져 외면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릉도원올레권역의 경우에도 마을별 분위기에 따라 경관 가꾸기에 차이가 있다. 신도2리는 리장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단합하여 마을 경관을 가꾸가는 마을로 권역의 경관 개선에 선도하는 마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1> 신도2리 경관 가꾸기 현황



마을만들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그리고 외부 방문객들을 마을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특색있는 전략이 분명 필요하다. 그러나 그 전에 우선적으로 깨끗한 마을이 되지 못한다면 그 외의 것들은 의미 없는 전략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무릉도원올레권역의 주민들은 지나다니며 신도2리의 경관가꾸기 모습을 직접 보고 마을 풍경이 좋아졌다고 평을 하면서도 정작 해당 마을의 경관을 더 나은 모습으로 가꾸려는 마을의 단합된 의지는 부족하다. 각 마을의 리더들을 중심으로 길가에 쓰레기 줍기와 같은 아주 작은 것들부터 시도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풍경의 권역이미지는 마을의 주민들에게 마을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 줄 것이고, 가까운 미래에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 4.2 마을자원을 이용한 이색 마을만들기

### 4.2.1 신도1리 마을 골목길 벽화정비

신도1리 마을 주거지로 들어가면 구불구불한 마을 안 좁은 골목길에 들담 등 담장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권역 내 마을 중에서 신도1리의 골목길이 가장 길고 구불구불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골목길의 담장들을 신도1리만의 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골목길에 접해있는 담장 벽에 벽화를 그리거나 붙여 특색 있는 마을 경관을 추구하되 골목마다 주제를 정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A라인의 주제는 ‘마늘·양파·감자 등 무릉도원 농산물거리’로, B라인의 주제는 신도리의 옛명칭인 ‘도원리(桃源里)’에 걸맞는 ‘복숭아나무 거리’로, 그리고 C라인의 주제는 신도리 도요지와 산경도예의 분위기 특성을 살리는 ‘도자기 거리’, D라인의 주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캐릭터 거리’ 등으로 주제를 정하여 신도1리만의 독특한 담장벽화를 만드는 것이다. 특색있는 담장벽화를 관광자원화하여 포토존으로 제공할 수 있고 마을을 지나는 올레꾼들에게도 좋은 구경거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에는 제주시 최초로 금속공예 문화마을이 조성되면서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제주 올레길 20코스가 김녕마을을 통과하고 있어 올레꾼들에게 또 하나의 재미를 전달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방문객의 증가로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그림 12 참조).

제주시 일도2동에 위치한 두메이골목은 공공미술 프로젝트 일환으로 2008년~2009년에 걸쳐 골목길 벽화를 조성한 곳이다. 낡고 낙후된 마을이었던 이곳에 아이들이 놀던 골목길의 이미지를 재생하고 활력있는 마을로 만들기 위한 벽화마을을 조성하여 지금은 많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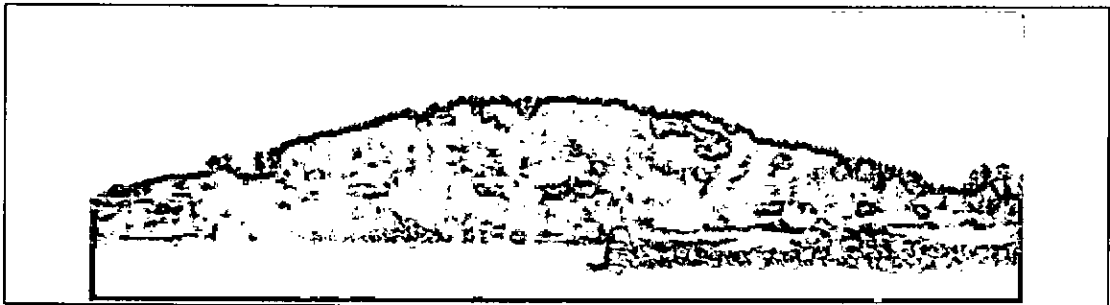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되어있다(그림 12 참조).



<그림 12> 벽화조성 사례

#### 4.2.2 신도1리 녹남봉 녹나무 식재 정비

신도1리 녹남봉은 예전에 녹나무가 많아 녹남오름이라 불리던 곳으로 현재는 소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녹나무는 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인해 많은 소나무들이 고사되었다. 소나무 대체수종을 녹나무로 설정하여 장래 녹나무 숲 조성을 계획하는 등 녹남봉의 방제대책을 잘 수립하여 향후 ‘녹남봉’이라 할 때 ‘녹나무’가 연상될 정도로 잘 정비해 나간다면 신도1리에 또 하나의 명소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출처 : <http://jeju6006.com>(2015.02.04).

<그림 13> 소나무가 많이 사라진 녹남봉 전경

#### 4.2.3 신도1리 도요지-산경도에 연계 도자기체험 프로그램 개발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58-4호로 지정되어 있는 신도리 도요지는 조상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던 허벅, 병 등의 도기를 만들었던 곳이다. 그릇의 표면에 유약을 칠하는 대신

자연 발색시켰다고 전하고 있으며 토요(土窯)인 타 지역의 도요지에 비교되는 세계 유일의 석요(石窯)인 제주도 도요지 중 한 군데이기도 하다. 신도리 도요지는 중요 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어 마을과 관리당국에서의 자원 보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구)신도초등학교(폐교) 부지에는 계룡산에서 활동하다가 2001년에 신도1리로 내려와 도자기 작업·체험공간인 산경도예를 운영하는 전문 도예가가 있다. 현재 전통가마체험, 도자기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에 도내 유사 운영업체가 생겨나면서 방문객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현재 년 평균 약 500명 방문).

서로 비슷한 소재의 자원인 신도리 도요지와 산경도예를 연계하여 도자기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지금보다 더욱 효과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산경도예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같이 참여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활성화를 위해 교육청으로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교육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을과 산경도예가 협동하여 운영이 활성화되면 많지는 않아도 일부 수익을 마을로 환원하여 상생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방곡 도깨비마을 도자기체험	헤이리 도자기체험학교 도자기체험
	
출처 : 방곡 도깨비마을 홈페이지	출처 : 헤이리 도자기체험학교 홈페이지

<그림 14> 도자기체험 사례

#### 4.2.4 신도2리 어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신도2리는 양식장이 없는 청정한 바다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마을로 지금도 꽤 많은 도구리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으며 경치 또한 빼어난 곳이다.

마을의 해녀 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줄어 지금은 19명의 해녀만 활동하고 있고 향후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마을 연안의 전통을 보존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신도2리에 연안생태학습장(신도리 3066번지 소재)을 신축하고 원담<sup>6)</sup>을 복원하면서 해녀/보말잡이 체험이라는 계획을 수립하기는 했으나 두리몽실하고 추상적인 계획이었다. 보말잡이, 구멍낚시, 해녀체험학습, 원담을 활용하는 바다체험 등 전통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계획하되 운영주체, 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주도내에는 이미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등 7개 마을이 어촌 체험마을로 지정되어 바다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우선 신도2리 리더들은 바다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선도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체험해보고 그 곳의 운영진에게서 운영방법 및 노하우 등에 대해 교육받을 필요가 있으며, 그 후에 마을 여건에 맞춰 최대한 신도2리다운 바다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특화시켜 나가야 한다.



<그림 15> 바다체험 사례

#### 4.2.5 신도2리 하멜표류 관련문헌 탐구 및 희생자 추모 헌다제 지속 추진

네덜란드인 하멜 등 선원 일행을 태운 상선이 1653년 태풍을 만나 난파되어 우리나라에 최초로 표착한 곳이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용머리 해안이라고 흔히들 알고 있으나 최근 최초 표착지가 용머리 해안이 아니라 신도2리 해안이라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지영록, 탐라순력도 등 고문서와 국립제주박물관이 발간한 ‘항해와 표류의 역사’에서 하멜 일행의 최초 표착 지점을 신도2리 해안 일대로 추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용머리 해안에 위치한 하멜상선전시관 내부의 소개 내용에도 하멜 표착지가 대정읍 신도2리 해안으로 표기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

하멜 일행이 국내에 최초로 표착한 장소를 용머리 해안으로 보고 하멜상선전시관을 그 곳

6) 원담은 제주도 해안가에서 밀물과 썰물의 차를 이용하여 고기를 잡을 수 있게 쌓아 만든 돌담을 말한다(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에 조성했는데 정작 최초 표착지는 다른 곳이라고 소개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초 표착지가 신도2리 해안, 용머리 해안 등으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행정당국의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제주일보 2015.06.22. 김문기기자).

고대해양탐험연구소 하멜기념사업회(회장 채바다)와 신도2리 하멜표착지 규명추진위원회 등이 2014년 8월 13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하멜 일행의 표착지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로 강하게 호소하고 있지만 20여년 동안 아무런 성과가 없었고 외면당해 왔다면서 주민들은 안타까워하고 있다. 한편 고대해양탐험연구소 하멜기념사업회와 신도2리 향민회는 역사를 바로 알리고 표착지 고향들의 넋을 달래주는 취지로, 신도2리 해안에서 추모 헌다제를 지내고 있다(한라일보 2014.08.14. 문기혁기자).

하멜 일행의 최초 표착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여 논쟁거리가 될 소지가 있으나 역사적 사실 증거들이 뒷받침하고 있고 관련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 또한 그러하다면 이는 진실을 바로잡아야 하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진실을 규명하고 역사를 바로 알리는 차원에서 하멜 일행의 최초 표착지를 바로잡는 일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당국에 문제를 제기하며 철저한 검증을 요청하고 있지만 학계 등의 자문을 계속 구하고 있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 관계당국에서 정확한 해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선불리 공식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신도2리 마을에서는 진실을 확신하는 입장에서 성과 없이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만도 없는 일이다.

언제 그 진실된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나 그 진실을 지나쳐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 역사적 문헌 탐구가 조금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신도2리 해안에서 해마다 열리는 추모 헌다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진정성을 잃지 말아야 하며 마을축제와 같은 행사의 일환으로 확대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 4.2.6 신도3리 충견 마을로 홍보



신도3리에 중심 극진했던 충견 설화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다. 주인 무덤과 개의 무덤이 나란히 있었는데 일주도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지금은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어 안타까운 상황이며 신도3리에 역사문화 자원이 그리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자원은 잘 보존하여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을의 중심부에 신도3리 충견 동상을 세우는 등 차츰 충견 마을로 홍보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충견을 테마로 하여 명소가 된 곳으로 전북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와 일본 도쿄 시부야역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에는 주인을 구한 의견(義犬)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오수면에서는 희생과 충성이 담긴 의견의 넋을 위로하고 의로운 정신을 길이 보존 시키며, 충견 명소로 널리 알리고자 매년 4월에 다채로운 의견문화제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임실군 문화관광 홈페이지 참고).

일본 도쿄 시부야역 앞에는 충견 하치를 기리기 위한 동상이 세워져있는데 시부야역에서 만남의 장소로 점점 유명해지는 곳이기도 하다.

하치는 주인이 출근할 때 역까지 배웅하고, 퇴근할 때도 역에 가서 기다려 함께 돌아오곤 했는데, 주인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그 후 10년 동안 매일 같이 시부야역으로 주인을 마중나갔던 일화가 유명하다. 오랜 시간의 기다림에 감동한 사람들은 하치에게 '공'이라는 호칭을 붙여 하치코(八公)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 일본국립과학박물관에 생전의 모습을 한 하치의 박제를 전시해 놓았으며 하치를 소재로 한 영화 '하치 이야기'도 세간에 화두가 되었었다(나무위키 <https://namu.wiki> 참고).

오수(槩樹) 의견(義犬) 동상	충견 하치와 주인 우에노 교수 동상
	
출처 : <a href="http://blog.joins.com/pts47">http://blog.joins.com/pts47</a>	출처 : <a href="http://www.asahi.com">http://www.asahi.com</a>

<그림 16> 충견 동상 설치 사례

#### 4.2.7 무릉2리 제주어교실 활성화

2013년 12월, 권역 사업으로 무릉2리에 제주어교실이 만들어졌다. 지금 현재 농촌 체험객을 위한 장소로, 마을의 대소사를 위한 장소로 잘 이용되고 있으나 당초 제주어교실은 마을행사나 농촌체험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설은 아니었다. 말 그대로 제주어를 배우고 익히며 제주어 보존을 위해 힘쓰는 제주어학당으로서의 역할을 위한 시설로 만들어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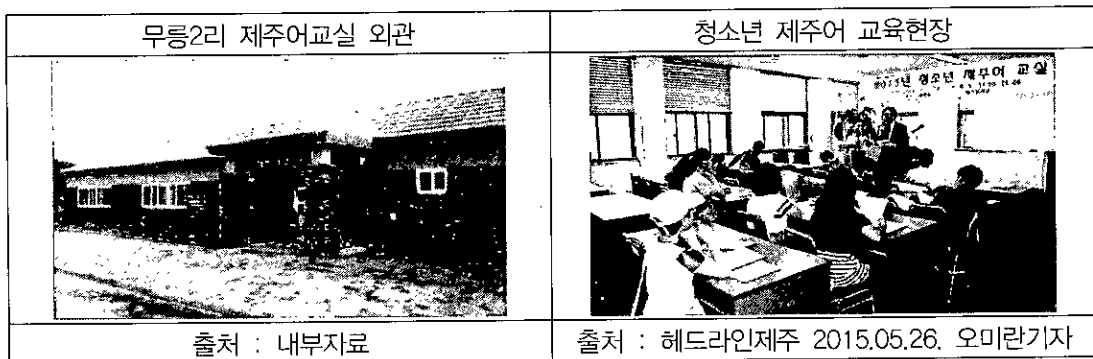
무릉2리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되어 마을 공동체 사업을 열심히 하는 마을 중 한 곳으로 권역 내에서도 공동체 사업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마을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을에

서는 나름대로 제주어교실을 체험객들을 위한 공간으로 잘 활용하고 있기는 하나 당초 계획한 제주어교육과 연관된 목적으로 쓰여지지 않는 현재의 모습에 대해 고민해야할 시점이 되었다. 처음 기본계획 시부터 명확한 목적의식과 방법론을 가지고 제주어교실을 추진하지 않았던 것이 첫째 잘못이라고 할 수 있지만 건축공사가 착수되고 완공되어 운영하는 현 시점에서의 고민이 부족한 것이 그 다음 잘못이라고 할 수 있다.

근래 제주도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주어 관련 교실 운영이 점차 증가하는 분위기이다. 최근 제주도와 제주어보존회는 약 9개월 간(4월~12월) 주 1회 과정으로 제주어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교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제주어로 자기소개, 동식물을 제주어로 말하기, 동요로 배우는 제주어, 제주도의 전통문화 알아보기 등으로 구성되며 교육은 서귀포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감산 지역아동센터, 조천 지역아동센터, 함덕 여성농업인센터 등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한라일보 2014.04.09. 진선희기자).



제주어의 소멸 가능성이 제기되며 제주어의 보존과 제주어 소통 문화의 확산을 위해 요즘 부쩍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분위기이다. 지금 이 때가 제주도 서귀포시 서쪽 중산간 마을인 무릉2리의 제주어교실에서 제주 농촌에서의 살아있는 제주어를 배워 볼만한 적기라고도 할 수 있다.

제주어보존회,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제주어센터 등 제주어 교육 전문기관, 그리고 제주도, 제주도교육청 등 행정기관과 연계하여 제주어 교육장소를 무릉2리의 '제주어교실'로 유치하고 제주어 말하기대회 등을 유치하는 등 마을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장소 및 대회의 유치는 일회성이 아닌 정례화된 프로그램으로 체계화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지금 현재 무릉2리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촌체험 프로그램들과 연계시킨다면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7> 무릉2리 제주어교실과 제주어 교육현장

4.2.8 무릉외갓집 홍보 촉진

무릉외갓집 BI <sup>7)</sup>	무릉외갓집 꾸러미 상품
	
출처 : <a href="http://www.murungfarm.co.kr">www.murungfarm.co.kr</a>	

<그림 18> 무릉외갓집 내부 전경과 꾸러미 상품

무릉2리에는 2009년도 제주올레의 1사1올레 결연사업으로 마을의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무릉외갓집 영농조합법인이 있다. 2013년도에는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었고 2014년도 전국 1194개 마을기업 평가에서 10개 우수마을 중 한 곳으로 선정될 만큼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 곳이다.

무릉외갓집 영농조합법인은 현재 조합원 29명이 활동하고 있고, 전국의 유료회원 약 550명을 확보하고 있다. 전국에 있는 회원들에게는 주로 마을의 농특산물(마늘, 브로콜리, 양파, 양배추, 쌈배추, 단호박, 감귤, 한라봉, 포도 등), 마늘잼과 같은 가공품들을 1년 내내 매월 1회씩 꾸러미에 담아서 운송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계절별로 신선한 제철 농특산물들을 엄선해서 배송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지금 현재 무릉외갓집 영농조합법인은 무릉외갓집전시관(무릉리 640-5번지 소재)에서 마을의 농특산물들을 전시해 놓고 판매도 하고 있으며 각종 운영사무를 보면서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전시관에서 직접 사무를 보면서 운영하는 직원이 단 2명으로 상당히 바쁜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직원을 더 채용할 만큼의 여건은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무릉외갓집 영농조합법인이 잘 운영되는 마을기업으로 점점 알려지고는 있으나 현재의 수익으로는 인건비 감당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홍보를 체계적으로 하여 전국의 대·중·소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청정한 제주도 무릉외갓집의 진면모를 알게 된다면 유료회원 수는 상당히 늘어나게 될 것이다.



지금은 무릉2리의 190여 농가를 비롯해 권역의 490여 농가 중 29가구만이 무릉외갓집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전국의 유료회원 수가 증가하게 되면 권역

7) 무릉외갓집 BI 폰트는 소박하지만 진실된 무릉외갓집만의 브랜드 감성을 전하고자 무릉리에 사시는 여러 할머니들의 손글씨들을 조합하여 만들어졌음([www.murungfarm.co.kr](http://www.murungfarm.co.kr)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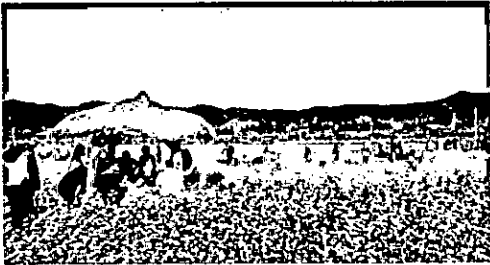

내 조합원 수도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일자리도 창출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우선 도시민들을 겨냥한 홍보 방법으로 첫째, 지하철·역, 지하철 차량 내부, 버스 터미널, 공항 여객청사, 여객선 터미널 등에서의 광고판 부착 및 리플렛 비치, 그리고 도시 공용버스 외부 광고판을 활용하는 차량랩핑 홍보 방법이 있다. 둘째, 파워블로그를 활용하여 홍보하는 방법이 있으며, 셋째, 신문 광고란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넷째, 무릉외갓집 BI 등 심벌마크 차량용 스티커를 제작하여 조합원들 가족 및 친지들의 차량에 부착하여 홍보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광고 비용은 조합법인의 적립회비 및 적립기금 중 일부를 회원들의 동의를 거쳐 확보해야 한다. 홍보를 위한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도 중산간 마을의 청정한 제주 지하수로 재배한 신선하고 엄선된 제철 농특산물이라는 ‘가치 유지’와 ‘가치의 확실한 특화’이다.

초록마을 차량 랩핑 사례	해거름마을 지하철 차량내부 광고 사례
	
출처 : <a href="http://carsign.co.kr">http://carsign.co.kr</a>	출처 : 내부자료

<그림 19> 마을·기업 브랜드 홍보 사례

#### 4.2.9 넓고 평탄한 농지를 활용하는 경관농업 확대추진

봉평 메밀꽃 축제장	고창 경관농업 특구(학원농장 메밀밭)
	
출처 : <a href="http://blog.naver.com/han560128">http://blog.naver.com/han560128</a>	출처 : 전북일보 2005.09.30 김경모기자

<그림 20> 경관농업 사례

권역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은 마늘, 양파, 쪽파, 감자 등이 주를 이루고 있고 권역 내 농가 가구당 평균 경지면적이 2.01ha로 제주도 내 농가 가구당 평균 경지면적 1.63ha와 비교하면 그 면적이 다소 큰 편이다. 권역의 농작물 중 마늘 재배면적은 전체 재배면적의 약 65%에 이르며 농지는 대부분 평야 형태를 이루고 있다. 근래 권역의 모습은 농촌다움을 유지하고 있고 어떤 지역에 비해서도 청정함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걷기 열풍이 일면서 제주를 찾는 올레꾼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권역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걷는 즐거움을 더해 주어 방문객들이 지나치는 장소가 아닌 체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도시민들이 휴식과 힐링을 위해 찾는 요즘의 농촌은 옛날 농산물 생산기지 개념의 농촌이 아니다. 단지 농산물 생산의 원초적 기능만을 담당하는 농업인들만의 소유 공간이 아니라 도시민들의 휴양, 관광 및 체험, 농산물 직거래 등 다방면으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열린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권역의 넓은 들판에 경관농업<sup>8)</sup>을 연계한다면 권역에서 계속되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시너지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경관농업은 대규모 관광단지조성과는 달리 저투입-저수익의 모델로써 보다 현실적인 Green Tourism모델로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고 주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여 생산, 가공, 유통 등과 농촌관광이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농촌관광의 대안이 될 수 있다(정철모, 2007).

권역 내 주 농산물인 마늘과 양파 등은 8월에 파종, 5월 중순~하순에 수확하고, 여름메밀은 5월 하순에 파종, 7월 하순~8월 상순에 수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작부 시기적으로 2모작이 가능하다. 토질 등 재배환경이 변수가 될 수 있으나 농한기를 이용한 효율적인 영농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채는 9월에 파종하여 4월에 개화하고 해바라기는 4~5월에 파종하여 7~10월에 개화하므로 권역의 작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국내 전체 메밀 재배면적의 35%인 848ha를 재배하고 있고 계속하여 그 재배면적을 늘려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국내 제일의 메밀 주산지이지만 생산량의 95% 이상을 강원도 봉평농협 등과 계약 재배하는 시스템으로 농가소득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향후 제주 메밀에 대한 홍보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제주 메밀 상표등록 등을 통해 브랜드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헤드라인제주 2014.12.14. 신동원기자).

권역에서 마늘양파 농사가 마무리되는 직후 곧바로 이어지는 농한기에 넓은 농지 면적을 여름 메밀로 경관농업화 해 나간다면 경관보전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8) 경관농업이란 농촌의 근경, 중경, 원경 등 조망 경관의 아름다움을 갖는 농업을 의미한다. 경관농업의 개념은 농촌경관의 특성을 감안한 것으로 경관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고 그것의 매력이 차별적인 농업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정철모, 2007).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권역의 방문객은 늘어날 것이고 지나쳐 가는 권역이 아니라 머물고 싶은 권역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메밀이라는 경관작물을 활용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할 수 있고, 추후 국수, 냉면, 부침, 전병 등의 재료 등 2차 가공품을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며 메밀축제, 체험관광 등 3차 산업과 연계하는 등의 6차 산업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4.2.10 바람자원을 이용하는 체험 프로그램 개발

권역의 연평균 풍속은 6.8m/sec로 제주도내 연평균 풍속 3.9m/sec와 비교하면 권역의 바람이 상당히 강한 편임을 알 수 있다. 강한 바람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적지 않은 제약을 받아왔지만 이제는 그 강한 바람을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권역의 마을 중에서도 신도1·2·3리는 바람이 강하기로 유명한 마을이다. 바람을 주제로 하는 연 만들기, 풍차 만들기, 바람개비 만들기 체험은 권역의 환경에 어울리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신도1리에서는 권역 홍보센터와 그 인근의 (구)신도초등학교(폐교), 신도2리에서는 연안생태학습장과 주변 모래해변, 그리고 무릉2리에서는 제주어교실과 자연생태문화체험골이 이러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적당한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연 만들기 체험	연 날리기 체험
	
출처 : 충청일보 2009.12.16. 전병찬기자	출처 : 매일일보 2015.02.27. 백중현기자
풍차 만들기 체험	바람개비 만들기 체험
	
출처 : <a href="http://chehum.net">http://chehum.net</a>	출처 : <a href="http://www.wonjong.or.kr">http://www.wonjong.or.kr</a>

<그림 21> 바람을 이용한 체험 프로그램

### 4.3. 마을간 응촌체협과 어촌체협의 연계

권역 내 무을2리 응어촌체협후양마을에서는 지금 현재 전동누복만들기, 원다리만들기, 칸클모찌만들기, 선사시대체협, 응경시대체협, 꽃자랑건기체협 등 응촌문화체협이 제수도 내 초·중·고 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무을2리에는 응촌의 다양한 체협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만 바다의 해양 체협프로그램이 없는 것이 하나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권역 내에는 바다를 끼고 있는 신도2리 마을이 있고 위 4.2절에서 언급한 신도2리의 어촌체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권역의 응촌 체협프로그램과 연계한다면 분명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권역 내 마을 중 무을2리만이 응어촌체협후양마을<sup>9)</sup>로 지정되어 있다. 권역 내 마을들이 상생하며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권역 내 다른 마을에서도 응어촌체협후양마을로 지정받아 서로 연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구축해놓아야 한다.

<표 11> 무을도원룡래권역 체협 프로그램 연계 예시

마을명	체협 프로그램 구성	연계흐름
신도1리	○ 도요지·산경도에 연계한 도자기체협 ○ 벽화거리 탐방	
신도2리	○ 보람잔이, 구멍낙시, 해녀체협, 원담고기 맨손으로 잡기 등 어촌체협 ○ 하멜 표류 역사 바로잡기 교육	
신도3리	○ 응진 설화 교육 및 응진 동상 탐방	
무을2리	○ 선사시대 체협 ○ 초기잡종농기, 칸자구워먹기, 마을싱기 및 수확, 전동누복만들기, 원다리만들기, 칸클모찌만들기 등 응촌문화체협	
마을 연계	○ 칸자마늘양파 등 농산품 수확 체협 ○ 연동차마랑개비 만들기, 연타리기 등 바람자원을 이용하는 체협 ○ 응관농업을 연계하여 메밀을 이용한 음식만들기 체협	

9) 마을에서는 「도시와 응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에 따라 응어촌체협후양마을사업자로 지정되면 체협장 숙박시설, 체협에 부수되는 음식시설을 활용하여 방문객에게 체험활동 및 숙박, 음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V. 결론

1960년대 이후 도시계획 상 경제성장의 필연적인 현상으로 대도시가 점점 늘어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등의 이유로 농촌 인구의 향도성(向都性)은 점점 더해져 갔다. 얼마 전까지 계속 이어지던 이농향도(離農向都)의 분위기가 최근 주춤해지고 있다. 2007년에 시행된 주5일 근로제의 영향으로 여가의 개념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고, 국민의식도 양적 위주의 가치관에서 질적 위주의 가치관으로 점차 변화되고 있으며 웰빙(well-being) 추구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시 하게 되면서 농어촌은 쾌적한 치유의 거주지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서귀포시 무릉도원올레권역은 지금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올레길이 생겨 점차 알려지고 있으며 농어촌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 권역이다. 현재 4개 마을(신도1·2·3리, 무릉2리)이 협동하여 열정적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라는 권역 마을만들기 사업(2016년 완료예정) 중 5년차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향후 권역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그리고 내년 권역사업의 준공을 앞둔 현 시점에서 앞으로의 권역 활성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권역의 마을별 자원 조사 내용과 지금까지 권역 사업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향후 권역의 마을만들기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① 깨끗한 마을만들기(현재 신도2리가 모범이 되고 있음), ② 신도1리 구불구불하고 좁은 골목의 테마별 벽화정비, ③ 신도1리 녹남봉 녹나무 식재정비(재선충병에 따른 소나무 고사로 인함), ④ 문화재로 지정된 신도1리의 도요지와 현재 도자기체험을 운영하고 있는 산경도예를 연계시키는 도자기체험 학습 프로그램 개발, ⑤ 청정한 신도2리 바닷가의 원담을 활용하는 어촌체험 프로그램의 구체적 개발, ⑥ 진실된 역사를 찾기 위한 신도2리 하멜표류 관련문헌 탐구 및 희생자 추모 헌다제 지속 추진, ⑦ 신도3리 충견 설화를 활용하여 충견마을로 홍보, ⑧ 교육청 등과 연계하여 무릉2리 제주어교실 활성화, ⑨ 권역 내 농특산물 꾸러미 배송서비스를 하고 있는 무릉외갓집 영농조합법인(마을기업)의 홍보추진, ⑩ 넓고 평탄한 권역의 농지를 활용하는 경관농업 확대 추진, ⑪ 권역의 바람자원을 이용하는 연풍차바람개비 만들기 및 연날리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 개발, ⑫ 각 마을별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받아 권역 내 마을간 농촌체험과 어촌체험 연계』

권역 내 자연·경제·역사·문화 자원들을 근거로 제시한 위 방안들은 권역 마을만들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4개 마을이 힘을 모아 열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때 유효한 것들이다. 만약 무릉도원올레권역 사업이 2016년도에 마무리된 후 마을별로 뿔뿔이 흩어진다면 분

명 마을별 격차는 벌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 같이 권역사업을 진행했던 이웃마을 간 위화감마저 조성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마을만들기는 가치지향적 운동이고 참여와 절차의 운동이다. ‘어떤’ 마을을 만들 것인가도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보다는 ‘어떻게’ 마을을 만들 것인가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마을이 상식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공존과 공생이 가능한지에 대한 끊임 없는 질문을 던지며 가능성을 찾아나가는 과정인 것이다(김세용 외, 2013).

마을만들기는 사람을 만드는 일이고, 사람이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어느 개인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 공동체가 같이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권역 마을만들기 활성화의 성과를 보는 것은 단시일 내에 되지 않기에 너무 조바심을 가질 필요는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목적의식 없는 것처럼 미지근하게 추진해서는 곤란하다.

마을만들기 성과를 보여주는 사례를 살펴보면, 마을 주민들이 주도하여 마을만들기를 발전, 안정화시키기까지 평균 10여년 정도 소요되는 것을 알 수 있다(차성란, 2010). 마을만들기의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으며 마을내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 역량을 축적하기 위한 긴 시간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강기호(2014), “제주 농어촌 마을만들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실증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강기호·이진희(2015), “주민참여와 농촌 마을만들기 사업성과의 관계에서 거버넌스의 매개효과 실증분석”, 농촌계획 21(1).
- 구자인(2012),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의 지자체 시스템」, 경기도형 마을만들기 전문가 워크숍 발표자료.
- 김남두(2006),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사업의 유형별 특성 분석”,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동근(2011),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주민의 참여의식 분석”, 국토계획,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46(3), p.6.
- 김미영(2009), “일본의 마을만들기 실천전략에 관한 고찰”, 민속연구 제18집, p. 161.
- 김세용·최봉문·김현수·이재준·조영태·김은희·최석환(2013), “우리나라 마을만들기의 현재와 앞으로의 방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정보지 통권 제371호, p.19.
- 김정희(2013), “농촌정책 방향과 과제”, 농촌활성화 컨퍼런스 주제발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p.7.
- 김찬호(1998), “후기 산업 사회의 도시 재생과 주민 참여에 관한 연구 : 일본 토요나카시(豊中市)의 ‘마을만들기 사업(まちづくり)’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농림수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2010), 「농촌마을종합개발백서」, pp.4-36.
- 농림축산식품부(201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참고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4), 「색깔있는 마을만들기 교육자료」.
- 다무라 아키라(田村明)(1987), 강혜정 옮김(2005), 「마을만들기의 발상」, 도서출판 소화.
- 마을연대(2003), 「주민참여 마을만들기의 마을 디자인운동 평가집」.
- 박혜련(2002), “봉암리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귀포시(2009), 「2009년 서귀포시 통계연보」.
- 서귀포시(2014), 「2014년 서귀포시 통계연보」.
- 송미령·김정섭·김광선·박주영(2008),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한 정책재편 방안(2/2)」, 연구보고 R57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111.
- 신중진·송승현(2008), “농촌마을만들기사업의 주민약속 활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4(10), pp.193-194.
- 여관현·계기석(2013), “지방자치단체 마을만들기 조례의 제정 방향 연구”, 도시행정학보 26(4).

- 이명규(2007), “주민참여속에 마을만들기의 사례와 시사점”, 건축 51(9), 대한건축학회, pp.46-47.
- 이윤석·김세용(2008), “함평군과 나가하마시(長浜)의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비교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4(12), p.208.
- 이진희(2009), “제주도 농어촌 관광마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산경논집 24, 제주대학교 관광과경영경제연구소, pp.159-184.
- 이진희(2013), 「일본 마치즈쿠리의 사례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농촌활성화지원센터.
- 이진희(2015), 「한림3리 마을의 발전전략」, 색깔있는 마을만들기 현장포럼 발표자료(2015년 6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농촌활성화 지원센터.
- 임경수(2010), 「농촌활력론 제Ⅳ장 농촌마을가꾸기」,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p.168-169.
- 정철모(2007), “농촌관광진흥을 위한 경관농업의 확대방안”, 농촌관광연구 14(1), pp.32-34.
- 제주특별자치도(2012), 「마을발전사업 매뉴얼」.
- 지경배(2002), 「일본의 주민참가형 마찌즈꾸리 사례연구」, 강원발전연구원 연구보고서, p.1.
- 지경배(2005),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추진절차와 실천사례」, 강원발전연구원.
- 차성란(2010), “가족친화마을만들기를 위한 모델 및 핵심 요소”,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2), p.67, p.73.
- 한국농어촌공사(2010), 「제주 서귀포시 무릉도원을레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서」.
- 행정자치부연세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2007),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성공매뉴얼 개발 연구」, pp.8-9.